

■ 2017년도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7년도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 심의평
- 회의일시 및 장소
 - 1차 : 2017. 1. 25(수),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 2층 위원실
 - 2차 : 2017. 2. 9(목),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 3층 다목적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동석, 박계리, 이수정, 이영준, 이예승, 이용백

2017년 시각예술분야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은 총 6인의 심의위원이 참여하였으며, 심의는 1차 서류심사, 2차 개별 PT로 나누어서 진행하였다. 심의위원은 전년도 사업 운영 결과, 연간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독창성을 중점으로 심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심의는 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의위원간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만 확인하였으며 특정 신청인(단체)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여부를 제안하는 발언은 일절 금지되었다.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 사업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립미술관, 비영리전시공간을 대상으로 공간의 연간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간에서 운영 중인 시각예술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시각예술 창작 활동의 거점을 확충하고, 예술가(단체)의 안정적 창작기반을 제공한다. 3년 이상 운영한 공간을 대상으로 지원심의기준인 공간운영계획의 충실성과 예술성(30%), 공간운영계획의 실현가능성(20%),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30%), 전년도 평가 결과(20%)에 따라 심의하였다. 총 64개의 공간이 지원하였고 1차 서류심사를 통해 56%가 넘는 총 36개의 공간을 선정하였다. 명확한 공간운영계획과 차별화된 중기 비전 수립여부, 공간운영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 및 운영 인력 확보 여부, 수혜단체인 경우 전년도 평가 결과 등 서류상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1차 심사를 진행하였다. 대안공간이나 사립미술관의 경우 대부분 비영리를 지향하고 있어 공간지원이 필요하기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공간특성을 확장해 나가는 공간을 중심으로 지원하였다.

2차 프리젠테이션 심사를 통해 공간 운영자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 하였고, 공간이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29개의 공간을 선정하였으며 1000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2차 심의에서는 미술계의 새로운 활력으로 기능했던 대안공간들의 활동이 일부이긴 하지만 점차 제도화되며, 많은 사립미술관들은 인력과 자본의 한계를 넘어서는 특화된 전략을 보여주진 못해 안타까움을 주었다.

선정된 29개 공간 중에 대안공간은 17개, 사립미술관은 12개다. 선정된 공간들은 성격이나 맥락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각예술공간으로 지역미술계 혹은 지역사회에서 뚜렷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대부분 장르로 특화된 공간, 지역의 문제에 적

극적으로 개입하는 공간, 차별화된 전시기획을 보여주는 공간, 미술계 담론을 주도하는 공간, 도시재생과 연계한 공간, 복합적이고 즉흥적인 예술활동을 수용하는 공간 등 미술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진으로 특화된 운영을 보여준 한 공간은 자신의 집을 리모델링해서 만들어 비록 규모는 소박하지만 사진에 대한 이해나 전시들이 뛰어나 향후 운영이 기대되었다.

심사위원들은 시각예술공간들이 좀 더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공간운영으로 인력과 자본의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고민하며 심의를 마쳤다.

시각분야 심의위원 일동